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위령봉사회	8월 6일(일), 11:40	강당
M.E.	8월 쉽니다.	
제대현화회	8월 쉽니다.	
임원 모임	8월 쉽니다.	
재녀를 위한 기도	8월 10일(목), 19:40	1교실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시 : 8월 7일(월), 10시
 - 미사집전 : 김형석 도미니코사비오 신부(새 사제)

알림

- 8월 9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8월 병자영성체는 쉽니다.
- 8월 17일(목)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시간

8/14(월)	19:00 (특전)
8/15(화)	06:30, 10:30, 19:00

※ 대축일 봉헌금 있습니다.



8월 15일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에 있어 가장 큰 축일 중의 하나이며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축일입니다.

청소년 분과

- 청년 여름 캠프
 - 일시 : 8월 26일(토) ~ 27일(일) 1박 2일
 - 장소 : 워터플레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비용 : 5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 신연미
 - 문의 : 신연미 가브리엘라 010-7599-3239

보스코 성가대 단원 모집

- 교중미사 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봉헌하는 봉사입니다. 함께하실 분을 모십니다.
- 대상 : 30대 ~ 50대 신자
 - 연습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연락처 : 박승환 가브리엘 단장 010-8949-0985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일(8/1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8월 쉽니다.	청소	18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7월 26일 ~ 8월 2일)

교무금	7,272,000원
주일헌금	4,818,100원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1,536,000원
	최창열100만원 심진보20만원 조정현30만원
감사헌금	김○○ 5만원 심재순10만원 이점례 5만원 양○○ 5만원 박정순10만원 구상호10만원 서만심 6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8/6	황원선	심재순	김영균	김진수	최상림	최웅조	권태희
8/13	박혜선	오성환	조흥환	유숙중	임종윤	김덕영	정연희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6	이운영	박승환	장인홍	최석준	이화봉
8/13	이화봉	옥윤필	최승일	최영만	최창열

화답송



주님은 임-금 이시다 온 땅 위에지 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10. 저는 매력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회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요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게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수호성인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하였고, 또한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을 지녔기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이며 순례자입니다. 그는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11. 프란치스코 성인은 통합 생태론이 수학과 생물학의 언어를 초월하는 범주에 대한 개방성을 요청하고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벅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하나 되는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낀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보나벤투라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는 만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차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고는 하였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기에 순진한 낭만주의로 폄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경탄과 경이에 열려 있지 못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형제애와 아름다움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지배자, 소비자, 무자비한 착취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밀한 일치를 느낀다면 절제와 배려가 곧바로 샘솟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실재를 단지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단념하는 것입니다.